

펴내는 글



유정수 교장선생님

인향고등학교가 2015년 누적 졸업생 1만 명을 배출하여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인향고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우리 인향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지 '인향'을 발간하기까지 한 해 동안 의욕적으로 교육 활동에 임해 준 학생 여러분과 제작을 위해 애쓰신 교지편집부 동아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인향' 발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인향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될 당부를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성실한 인향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일삼성(一日三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낸 사람은 바로 자기 인생의 꿈을 키워가며 희망찬 밝은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으며,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보람찬 일만 하려 해도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 생활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창조적인 사고를 지닌 인향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향고등학교에서는 창조적인 사고를 지닌 인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를 대비하고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의 적성과 잠재 능력을 계발하여 신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학습하는 것이므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인향고등학교는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고 심신을 도야하는 곳입니다. 학교생활은 곧 여러분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보람찬 학교생활을 통해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급년에는 그 어느 해 보다 보람찬 한 해가 되어 학교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게 발전하여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받을 줄 아는 인항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듯 인간은 그 존재가 흰 종이와 같아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삼인행(三人行)에 필유아사인(必有我師焉)이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반드시 배우고 본받을 줄 아는 인항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훌륭한 점을 본받으려 노력해야 하고,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점을 피하려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항인은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본받을 줄 아는 성숙한 인항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5년은 우리 인항고등학교가 외면은 물론 내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꾀한 해이기도 합니다. 개교 28주년을 맞이하는 인항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사회를 향해 나갈 준비가 된 성숙한 청년의 나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항고등학교도 열정이 넘치는 청년처럼 보다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면적으로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생활복 선정은 물론, 그동안 우리 학교의 개교와 함께 해온 체크무늬 교복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큰 의미의 변화는 바로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1·2학년에 걸쳐 방과 후 수강 체제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자기주도적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학사운영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수업과 창의체험 활동 그리고 진로체험활동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곧 시작될 2016년, 새 학년은 졸업생들에게는 성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가슴 뛰는 해가 될 것이며, 우리 재학생들에게는 28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다시금 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인항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인항인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